덕일 총인 "내가 깨치면 세상이 正道 찾는다"

진각종 총인원서 추대법회 봉행
덕일 총인 법어서 '심원공적' 강조
"마음의 제 모습 회복하자" 당부
윤 대통령 "행복한 나라 만들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한 '제14대 총인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덕일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진각종이 종단의 신성인 제14대 총인예하 덕일 대종사의 추대를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총인 덕일 대종사는 "내가 깨치면 세상이 정도(正道)를 찾아간다"는 첫 가르침을 대중에 전했다.

진각종은 9월 10일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4대 총인예하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국가와 종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식보다는 의미에 집중하자는 총인예하의 뜻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을 자제하고, 축전과 화환을 사절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졌다.

지난 8월 1일 법통승수식을 통해 진각종 제14대 총인으로 취임한 덕일 대종사는 1970년 종비장학생으로 종단에 입문했다. 1986년 최정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상석·원선·대원·보원심인당 주교와 홍교부 문화국장, 심인고등학교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유지재단 이사, 제9, 13, 14, 15대 종의회 의원, 제14대 종의회 의장, 위덕대 불교대학원장, 위덕대 정교실장,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등단정좌'하며 법상에 오른 총인 덕일 대종사는 첫 대중 법어를 통해 '심원공적(心源空寂)'을 강조하며 본래 마음 자리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덕일 대종사는 "마음의 근원은 허공처럼 고요하니 대일광명은 심원에서 이미 빛나고 있다"면서 "마음의 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내 탓을 찾아서 바로 잡고 이웃에 힘써 소생의 생활을 하도록 정성을 다하자"고 설했다.

이어 "내가 먼저 깨치고 참회해 실하면 상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정도를 찾아간다"면서 "심인공적의 자리에는 세사(世事) 갑론을박의 아우성도 화음을 이루려는 몸부림도 돌아간다. 안으로 제 몫을 다해 화합하고 밖으로 평화와 번영이 깃들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봉행사를 통해 덕일 대종사의 총인 추대로 "진각종문의 새 장이 열릴 것"을 선언했다.

도진 정사는 "종단 백년대계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총인예하의 이러한 수행이력은 진언행자들로 하여금 자비와 희사의 실천적 삶을 이끄는 원력이 됐다"며 "우리 종도들은 제14대 총인 추대법회를 봉하며 이 인연으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 증득하시고 가르치신 길을 따라 심인진리의 대도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종단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불교계를 대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진각의 법통을 새로이 승수하시는 총인 덕일 대종사의 추대는 참으로 뜻 깊은 의미가 있다"며 "진각종은 복혜많으신 덕일 대종사를 총인으로 추대하는 만큼 스승님을 닮아 항상 밝은 지혜와 용맹심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계속 힘 써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진각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의 생활에 깃들게 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면서 "오늘 추대되시는 덕일 대종사님은 밀교학의 체계를 세우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함과 더불어 틈틈이 펴낸 저서들을 통해 원력을 보여주셨다. 대종사님의 삶이 신교도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가 '2024 불교도대법회' 원만봉행을 기원하며 성금을 쾌척했다.

"전 국민에게 불교 참모습 전하겠다"

불교도대법회 기금 전달 이어져
조계사 · 봉은사 · 제16교구본사 등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 봉행을 기원하는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와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9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각기 성금 3억원을 쾌척하며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했다. 뒤이어 해상 관음기도도량 강화도 보문사(주지 선조 스님)도 9월 10일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9월 11일 주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동 봉정사(회주 호성 스님)와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혜자 스님)은 각각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탰다.

선묵 혜자 스님은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중과 함께 불교도대법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은 "법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불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환아 치료지원

국내외 어린이 52명 지원
모금캠페인 9월 30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을 앓는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해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9월 4일 전법회관 3층 보리수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고 지원 금액과 대상자를 선정했다.〈사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린이의 나이와 중증도, 가정 경제력 등을 고려해 국내 22명, 해외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는 '제24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캠페인'에는 현재까지 총 3억원 상당의 성금이 모연됐다. 캠페인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의성불교사암연합회 등 41개 사찰 및 불교계 단체와 하나금융나눔재단, BBS불교방송 등 기업체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금을 통해 난치병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나눔과 자비의 마음을 모은 덕분이었다"며 "지원금이 어려운 가정의 난치병어린이들의 희망이 돼 쾌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정위원이었던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재단의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은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시"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난치병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재가 불자 연예인·셀럽 조직 관리 필요"

현주 스님, 교육원 전문연구자 세미나서 주장

16세기 민간 수륙재 확산에
민간 '거사' 유랑단 역할 커
"연예인 신행담 SNS 홍보를"

"연예인들과 셀럽들의 파급력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막강해졌다. 불교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연예인과 셀럽들을 통한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재가 불자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를 통한 불교 홍보 및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법'을 주제로 열린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은 '조선 후기 유랑연희집단 거사의 활동을 통해 본 뉴진 스님 성공사례 고찰'을 통해 조선 후기 유랑집단 거사와 뉴진 스님의 포교 사례를 비교하고, 향후 연예인 포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현주 스님에 따르면 조선 전기 왕실의 주도로 설행되는 수륙재는 명종 대인 16세기 중반 이후 유교식 의례인 여제(厲祭)로 대체됐다. 하지만 수륙재는 조선 후기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봉행되기 시작했다. 이 같이 민간 수륙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거사(居士)'로 불리웠던 유랑연희집단의 역할이 컸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비승비속의 무리로, 마을에서 세운 염불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의례를 주관한 전문 예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

그러면서 현주 스님은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이라는 포교 사례를 분석했다.

현주 스님은 "작금의 한국불교는 타종교의 선교행위와 양적 팽창으로 힘겨워하지만 대중들의 호감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 성리학 사회에서 '거사'들이 자구책을 모색해 대중친화적인 전법활동을 전개한 모습과 닮았다"고 분석하며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비승비속의 뉴진 스님이라는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뉴진 스님의 성공사례를 통해 현주 스님은 △'힙함'의 극대화 △연예인·셀럽 신도 조직 관리 △불교문화 DB 작업 및 무료 제공 △불교 부정적 이미지 모니터링 등을 포교 전략으로 제안했다.

신중일 기자

2024
국제선명상대회
9. 27(금) - 10. 01(화)

전국 선명상축제 프로그램

모두 함께 선명상 즐기기 : 해외 전문가 초청 명상토크와 선명상 체험


로시 조안 할리팩스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우파야 선센터 설립자


툽텐 진파
마인드 & 라이프 의장


차드 멩 탄
前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팝루스님
플럼빌리지 전통의 미국 수행자


직메 린포체
전 세계 티베트 불교의 명상과 철학 지도자

서울	조계사	9/29(일) 11:00	직메 린포체	02-768-8580
	봉은사	9/29(일) 15:00	툽텐 진파	02-3218-4815
경기	남양주 봉선사	9/29(일) 10:00	호산스님	031-527-1951
	김포 중앙승가대학	9/30(월) 15:00	툽텐 진파	031-980-7713
영남	부산 범어사	9/30(월) 14:00	조안 할리팩스	051-508-3122
호남	전주 서고사	9/29(일) 14:00	차드 멩탄	063-212-7709
강원	평창 월정사	9/29(일) 10:00	팝루스님	033-339-6615
충청	대전 보문고등학교	9/30(월) 14:00	차드 멩탄	042-620-6600
청년·외국인	서울 홍대선원	9/29(일), 9/30(월)	준한스님	010-5707-2423
예술인	부산 쿠무다	9/27(금) 17:00	주석스님	051-702-1300
군인	논산 호국연무사	9/29(일) 10:00	곽정은·뉴진스님	010-2559-0336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